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February 06, 2013

Biweekly Report

- 2** Car Sharing Services Grow, And Expand Options
황철현, from The New York Times
- 6** Has Apple Peaked?
조은영, from The Economist
- 9** ベトナムは「チャイナプラスワン」で居続けられるか?
현지윤, from Nikkei Business
- 13** The Surprising Upside to Japan's 'Currency War'
김효진,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16** China's Population : Peak Toil
이주현, from The Economist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8** Chinese Graduates Say No Thanks to Factory Jobs
서지용, from The New York Times
- 23** Saving the Euro, Dividing the Union
김주찬, from Foreign Affairs

Car Sharing Services Grow, And Expand Option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1.25\)](#)

* 요약자: 황철현 (chul@hanyang.ac.kr)

* 키워드: 카셰어링, 트렌드, 차별화 서비스

“확대되어 가는 카셰어링 시장과 향후 전망”

□ 카셰어링에 대한 수요 증가와 대중화로 인해 진입 기업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경쟁 및 차별화가 이루어짐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셰어링 시장에 많은 대기업 및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이 진출
 - 최근 렌터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vis에서 카셰어링 업체인 Zipcar를 4910억 달러에 인수
 - 독일 고급 승용차 제조업체인 Daimler 또한 5년 전부터 Car2go라는 카셰어링 업체를 세우고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추세
- 이와 같이 카셰어링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은 카셰어링의 대중화에 기인
 - 미국에는 지난해 약 800,000명이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
-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증가로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업들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카셰어링

카셰어링(carsharing)은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보통 회원제(연회원)으로 운영되며,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린다.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나 짐을 옮길 때 등 규모가 작으면서도 종종 하게 되는 일에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 Daimler의 Car2go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면서 고객들이 기존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개선

- Car2go는 시와 협의하여 도시 내에서 합법적인 주차공간이면 어디든 상관 없이 무료 주차를 가능하게 함
 - Car2go는 워싱턴에 차량당 2,890달러를 지불하여 무료 주차를 확보함
- 또한 이전에는 요금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었지만 Car2go는 분 단위로 계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
-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빌렸던 장소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
 - Car2go는 빌린 도시 내 어디에서든 반납이 가능하게 하여 큰 호응을 얻음

□ 이와 같이 일부 카셰어링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벗어나 연령별 타깃을 기초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Zipcar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잡고 트위터 해시태그(hash tag) 및 SNS를 통하여 광고
 -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렌탈 사무소를 세워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차량을 배치
- 또한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 Enterprise CarShare는 닛산의 전기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비영리 단체인 City CarShare는 휠체어가 탑재된 차량을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손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중화 되는 이유는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


-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기를 원함
 - iTunes는 소비자들에게 앨범 전체가 아닌 듣고 싶은 곡들에 대한 금액만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례
- 카셰어링은 저렴한 가격에 매우 편리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기를 얻음

□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장점을 지님

- 전체적인 차량 보유 대수의 감소로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소비자들도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차료 등을 절약할 수 있음

□ 카셰어링 시장의 미래는 서비스 제공 시장의 균형과 충분한 수요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도시에서 카셰어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시장의 대기업 및 소규모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 카셰어링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과 기존 소규모 기업들 간의 공존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Daimler 및 Avis가 진입한 후에도 폐업한 카셰어링 업체는 현재까지 없음
- 또한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7개국의 170만 명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향후 카셰어링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Has Apple Peaked?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1.26\)](#)

* 요약자: 조은영 (eunpure@hanyang.ac.kr)

* 키워드: 애플, 주가 하락, 회복가능성

“2013년 애플의 전성기는 다시 올 것인가”

□ 애플의 지난 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

- 애플은 지난 1월 23일, 전 분기 대비 이익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
- 실적 발표 후 애플의 주가총액 중 570 억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유출됨
 - 이는 포드사의 총 가치와 동등한 수준

□ 과거의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는 하락 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폭락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

- 이는 애플의 승계자인 팀 쿡이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
- 애플의 높은 마진율을 보고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
 - 애플은 550억 달러의 매출에 38.6%의 이익을 달성

□ 하지만 애플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주가회복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

재

- 애플의 지지자들은 애플의 주가 하락이 과거 MS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애플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주장에 반박
- 또한 MS는 인기가 주춤한 PC 분야에 집중하지만, 애플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같은 가격이라도 상대적으로 애플의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임
-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China Mobile과 애플이 맺은 협정 역시 애플 주가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애플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인 스마트TV에서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보유

- 애플의 스마트TV는 앞으로 홈 디지털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집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TV로 세탁기 체크하는 것이 가능
- 스마트TV와 연계된 애플의 다른 상품들의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스마트TV를 통한 애플의 또 다른 성공을 아직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


- 이미 시중에는 다양한 스마트TV가 존재하며,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애플이 기존에 출시한 상품 중에서 아이튠즈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를 TV를 통해 이용하게 해주는 '셋탑박스'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게다가 애플의 스마트TV 가격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삼성과의 경쟁구도 역시 애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 애플의 신제품은 기존 상품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정도에 머무르지만, 삼성은 획기적인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 및 출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발생한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애플이 방어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함

□ 전반적으로 볼 때, 애플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과거 전성기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과거 애플의 혁신을 이끈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으로 치열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상황
- 애플은 앞으로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많은 배당을 지불하거나 주식을 되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이는 투자자들에게 애플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인상밖에 주지 못함 

베트남은「차이나플러스ワン」で居続けられるか？

* 기사출처: [Nikkei Business \(2013.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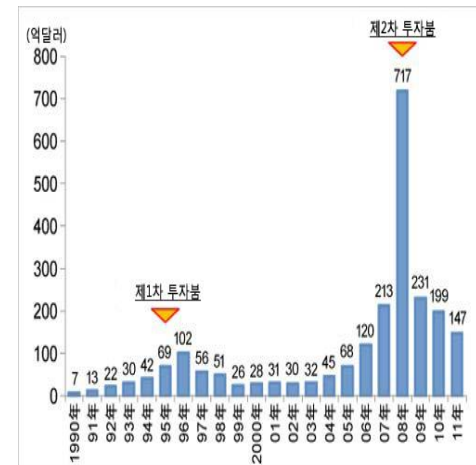
* 요약자: 현지윤 (ozma@hanyang.ac.kr)

* 키워드: 베트남, 침체기

“급격히 성장해온 베트남의 최근 투자침체 원인”

□ 베트남은 1990년대 시장개방 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 호황을 누림

- 1990년대 초 미·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후, 높은 원가 경쟁력에 매료된 기업들이 베트남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1차 투자붐을 맞이
 - 1995년 무렵에는 WTO,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 신청
- 2007년 WTO 가입이 결정되며 2차 투자붐이 도래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2008년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3배로 급등
 - 2006-2008년 제2차 투자붐 시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4%에 도달



□ 베트남이 투자대상국으로 선호된 이유로는 풍부한 노동력과 근면 성실한 국민성이 있음

- 베트남 인구는 ASEAN 가입국 중 세 번째로 많은 9천만 명이며 평균 연령이 28세로 매우 낮은 편

- 풍부하고 젊은 인구는 현재 노동 시장을 지탱하고 미래에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근면 성실한 국민성으로 장기적인 인재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으로 육성 가능
 - 베트남인은 주변국에 비해 원칙과 약속을 투철히 지키며 상하관계를 중시

□ 또한 국경이 남중국해 및 중국과 접해 있어 교역의 중심지로서 지리상 우위를 차지

- 바다 쪽으로는 남중국해를 접하는데, 남중국해는 세계 유수의 교역항과 닿은 바다로 세계 최대의 교역량을 자랑
- 내륙은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으며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메콩 지역으로도 도로망이 뻗어 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이 둔화됐으며, 이는 FDI와 GDP성장을 추이에서 확연히 드러남

- 2012년 FDI는 130억 달러로 2009년의 약 60% 수준
- GDP 성장률도 2007년 8.5%에서 2012년 상반기 4.8%까지 하락

□ 이러한 투자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에서 큰 타격을 받음

- WTO 가입 후 수입이 수출을 앞질러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베트남 통화 가치가 하락

- 총 무역적자 중 중국에 대한 적자가 전체의 50% 이상

-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도로 및 전기와 같은 인프라와 산업기반장비가 받쳐주지 못한 점도 인플레이션을 유발

□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산업정책으로 인해 사업과 투자가 난항을 겪는 것이 두 번째 원인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사업과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움
- 또한 정부가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않아 사업의 큰 변수로 작용
 -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와 보유세를 낮춘 이듬해에 원상태로 되돌리는 등 정책 방향을 읽기 힘들

□ 세 번째 원인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입되고 있는 투기자금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기업 투자의욕이 감소

- 과거 아시아 주식·환시장에 흘러 들어 통화위기를 촉발했던 투기자금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유입
 - 2006~2007년 5개월 간 주가가 3배로 뛰어오르고 도시 지가(地價)도 1년 간 3배 상승
-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 불안정한 거시경제는 투기자금의 유입을 심화시킴

□ 베트남 정부는 시장개방 강화를 통한 '탈중국화'를 꾀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은 자칫 국내산업을 퇴보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므로 정부 역량이 핵심적으로 필요

- 베트남은 중국-ASEAN FTA와 ASEAN 권역 내 관세 철폐 등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노선을 유지할 계획
 - 2015년 중국산 거래품의 90%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중심의 적자무역에서 흑자무역으로 옮겨감으로써, 무역수지와 인플레이션의 개선을 시도
 - 이를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
- 시장개방은 외자규제, 인허가제도 등 각종 외자유입장벽을 무너뜨려 국내 산업을 정체시킬 수도 있는 수단이므로 정부의 능력이 매우 중요 **FBI**

The Surprising Upside to Japan's 'Currency War'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3.01.24\)](#)

* 요약자: 김효진 (khj1227@hanyang.ac.kr)

* 키워드: 환율전쟁, 엔화, 완화정책

“일본의 통화 평가절하 조치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

□ 일본의 통화 평가절하 조치로 인해 전세계가 '환율전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 지난달 집권한 아베 정권은 엔화의 평가절하 조치를 통해 자국 내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지난 9월 이후 13%나 하락하였으며, 이후 더욱 하락할 전망
-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 국채 등의 자산 매입을 통한 통화완화 방침을 계획
 - 두 가지 방침 모두 장기적으로 엔화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엔저정책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성장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일본의 엔화 약화 조치를 지지

-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일본 수출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물가는 상승하겠지만, 물가 상승이 침체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님
- 따라서 엔화를 약화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침체되었던 일본의 국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성장주의자들은 세계 경제와 일본의 불황 타개를 위해 통화 약화 조치를 지지하기도 함
 - 일본의 불황 타개가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주변국 및 무역상대국들 또한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주장

□ 그러나 엔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과 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도 존재


- 경제 전문가들은 엔저정책을 위한 방법으로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무역수지의 적자 수준을 증가시키는 편이 현명하다고 주장
 - 일본은 막대한 무역 흑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통화 약화 정책을 추진 중
- 또한 아베 총리는 엔화의 약화를 위해 최근 중앙은행에 외국채를 대량 매입하도록 권고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음
 - 중앙은행의 외국채 구매 계획은 국제적인 지지 없이 구상되고 있음
 - 이는 지난 85년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동의 하에 통화 약화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

□ 또한 엔화 평가절하 조치에 일본의 무역 상대국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흥성장국들의 우려가 고조됨

- 한 국가의 통화 약화 정책은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공핍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
 - 무역은 한 나라가 통화 약세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나라가 생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에서 드러남
-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 및 독일 정부 등 각국에서 보복성 평가절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냄
- 특히 신흥성장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의 약세로 인해 그 추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제로금리에 도달한 선진국 투자자들의 투자 증가로 터키, 태국, 한국 등 신흥성장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

□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본정부는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엔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 일본 정부는 엔화의 국제적 영향력에 미루어 국제 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선에서 통화 엔저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실제로 아베 정부 내에서도 엔화가 급락할 경우의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만큼 아베 정부는 현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함
 - 내각의 한 경제 자문위원은 엔저 정책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China's Population: Peak Toil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1.26\)](#)

* 요약자: 이주현 (bmsgbhog@hanyang.ac.kr)

* 키워드: 산아제한정책, 생산가능인구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가져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 영향”

□ 2013년 1월 18일 중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총 345만 명 감소

-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야기
 -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만을 출산하도록 제한하면서, 증가하는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짐
 -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워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번 통계 자료는 생산가능연령의 변경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중국 통계청은 15세에서 64세까지였던 종전의 생산가능연령기준을 15세에서 59세까지로 변경
 - 이는 중국 생산인구의 감소 추세를 기존보다 빠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 통계 발표와 더불어 중국의 기존 산아제한정책 재편에 대한 요구가 증폭될 전망


-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그 적용이 엄격하지 않은 편
 - 예외사항을 고려한다면 한 가정당 1.47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
- 전문가들은 산아제한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들은 최고의 피임법은 교육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강조하며, 중국의 여성들에게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
- 심지어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되더라도 중국의 출산율은 1.62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그 반론이 공존

-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15세에서 24세 인구는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낙관주의자들은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를 중국 도서지역의 인구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루이스는 중국 도서지역의 노동자가 900만 명 감소하는 동안 도시 노동자의 수가 1,200만 명 증가한 것을 강조
-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미 2004년부터 중국 도서지역에는 잉여노동력이 없다고 역설하며, 그들을 도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와 달리 1995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고용의 성장이나 산업구조의 재편보다는 생산성 향상이었다는 견해도 있음

-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에서 고용의 확장은 0.7%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음
- 중국 성장의 비밀은 노동력의 증가보다는 새로운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투입되어 생산성 향상을 이룬 데에 기인 

Chinese Graduates Say No Thanks to Factory Job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3.01.24\)](#)

* 요약자: 서지용 (jonglelsta@hanyang.ac.kr)

* 키워드: 인력난, 대졸자, 취업

“실업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13억 중국의 고민”



□ **제조업의 허브로 불리는 광저우의 공장에서는 일할 노동자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이를 외면한 채 실업자 상태로 구직 중**

- 수많은 공장들은 임금 상승과 복지혜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 그러한 일자리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공장보다 임금이 적은 사무직을 찾아 다니고 있음

□ **이처럼 공장은 인력난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실업자들은 급증하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

-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초반의 대학 졸업생들은 초등교육만을 받은 이들보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4배 높음
- 공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고자 하며, 다른 한 쪽에서는 대학이 이런 종류의 일을 기피하는 대학생들을 사회로 내보내고 있음
 - 한 중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채용에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
- 최선의 상황은 졸업생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지만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이 상당한 임금을 받는 사무직에 종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

□ **정부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실업난과 인력난의 공존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지난해 3월 대학 졸업자들 중 78%만이 구직에 성공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지만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과

프리랜서의 수가 포함된 수치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장관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을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 이러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최근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 숫자가 늘었으나 극히 소수의 전공만이 선호되는 현상에 기인

- 사무직을 빠르게 생산해내기 힘들었던 경제체제 하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1989년 봄과 비교했을 때, 현재 11배나 많은 대학생들이 있음
 -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활동에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학에서는 공학과 같은 전공이 인기를 잃어가고, 경영학과 경제학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
 - 따라서 공장 내의 일자리에겐 관심이 줄어들게 됨

□ 선호되고 있는 특정 전공들의 졸업생 수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기업에서 받는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2000년 중국 선전 컴퓨터 과학 졸업생들이 상위 기업에 종사하면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은 725달러였으며, 이는 공장 근로자 임금의 10배 수준
- 그러나 현재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 평균 550달러로, 공장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2배 수준으로 하락
 - 게다가 이는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

□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한 가정 한 자녀 제도로 유복하게 자란 자녀들의 의식과 이들에게 특정 직업을 권유하는 부모들의 경향을 들 수 있음

- 한 가정 한 자녀 제도로 인해 외동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총 6명의 지원을 받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따라서 자녀들은 환경이 열악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
- 고임금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를 은행과 같은 금융권으로 권유하는 추세

□ 세 번째 원인은 중국 고유의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 중국학 센터장이자 중국 노동 쟁점 전문가인 중국에서 공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흔히 있던 일이라고 언급
 - 학생들은 대중 교육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대학 진학 시 자연스럽게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됨
- 또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유교 전통 아래에 있었음


□ 이와 같은 실업난과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업 학교 및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낙인 되어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오해로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들은 힘든 노동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지위 때문에 직업을 외면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장에서의 일을 기피하게 됨

□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장에서도 임금을 인상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광저우 남쪽에 위치한 가정 사우나 제조업체인 Hongyuan은 신입사원들에게 한 달 임금으로 395달러를 지불하고 있음
- 또한 6인 1실의 기숙사를 2인 1실의 아파트로 교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더 이상 임금의 일부를 수습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대신 공장은 감독관들에게 새로운 근로자가 공장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해당 감독관들에게 한 달에 8-16달러 가량의 보너스를 지불
- 또한 기업의 한 근로자당 임금 비용은 매년 30%씩 인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21% 대의 전국 이주노동자들 임금 비용의 상승 폭에 비해 빠른 속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은 여전히 현장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내 2차 산업의 비중은 높은 편**

- 일부 공장은 에어컨이 없고 전동 장비가 일으키는 톱밥이 이리저리 날리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대학졸업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함
-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티셔츠 업체인 TAL그룹의 생산 공장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PC로 온라인 도서관과 에어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인력난에 시달림
- 그러나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 공장 내 직업들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제조업, 광산업, 건축업은 중국 생산의 47%를 차지
 - 이는 미국의 2배 수준이며, 서비스 부문은 아직 발전이 부족한 상황 

Saving the Euro, Dividing the Union

* 기사출처: [Foreign Affairs \(2013.01.21\)](#)

* 요약자: 김주찬 (kjcjuchan@hanyang.ac.kr)

* 키워드: 유로존, 뉴노멀, 금융구제

“뉴노멀을 통해 꾸준히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EU”

□ EU는 산하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새로운 통치 구조를 통해 붕괴위기에서 벗어남

- 유로 국가들은 EU 산하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재정 관련 조약에도 승인하는 등 유럽의 통합을 더욱 끈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며 EU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예견을 불식시킴
 - 유럽 중앙은행장은 유로화 사수를 위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강조
- 주요 신용평가기관 역시 EU의 위기 극복을 인정하는 분위기
 - S&P는 그리스의 국가부채 등급을 상향조정
 - Fitch는 이제 유로존의 붕괴 확률이 '매우 낮다'고 발표

□ 그러나 영국으로 위시되는 반(反)유로 세력과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영국은 다수 여론과 집권당인 독립당이 EU탈퇴를 주장
 - 여당과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는 카메론 영국 수상은 곧 EU에게 사회 정책, 고용, 정의 부문 등에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임

- 유로의 경제 및 정치적 연합이 강화될수록, 유로존 국가들과 그 외 주변국들 간의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관료들은 '다중 속도의 통합'을 제안해왔으나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 '다중 속도의 통합'이란 EU의 정책에 대해 중심국가들이 더 깊게 관여하면서, 주변국들은 상황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
-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더 깊은 유대를 원하는 국가와 이를 거부하는 국가 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어려움

□ 유로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국들의 부채와 신용붕괴 문제가 대표적

- 2000년대에 막대한 양의 자본이 북유럽에서 남부유럽의 공공 및 개인 채무자들에게 유입됨
- 이는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한 반면, 임금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역효과를 낳음
-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막대한 부채를 남겼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 수년이 소요됨

□ 이와 같은 유로존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해답이 불분명

- 유로 문제는 더 이상 '위기(crisis)'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없으며, 몇 년 동안 지속될 일상생활이 되어버림
- 그리스의 경우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의 수정 또는 완벽한 유로존 붕괴와 같은 확실한 결정이 수립되지 않았음

□ 또한 주변국들이 유로존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가기도 어려운 실정

- 유로존을 탈퇴하는 나라는 재정 시스템의 붕괴와뱅크런, 폭동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 하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유로존에 쌓인 부채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함
- 새로운 자국 화폐를 도입할 경우,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남유럽의 경우 유로 소속의 문제보다 자국 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 스페인의 실업률은 15~22%에 달함
 - 그리스는 독립국가로서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국이었음

□ 이에 유로존은 구제금융 금지 조항의 수정과 같이 '뉴노멀'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

- EU는 설립 시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채무 위험을 억제하고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구제 금융 금지 조항을 포함
- 그러나 이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EU는 전염을 막기 위해 구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국에 긴급 금융 용자를 감행
- EU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에 적자 한도를 지정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을 도입

뉴노멀 (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 년~10 년 간 세계 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 역할 증대, 1980 년대 이후 규제 완화, IT 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 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힌다.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 또한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원래의 규칙에서 벗어나 유연한 방식으로 회원국을 돕고 있음

- 법적으로 금지되어왔지만 ECB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사채를 수십억씩 직접 사들임
- ECB는 상업은행에 대해 1조 유로가 넘는 용자를 낮은 금리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 자금 조달 방법을 이용
- 이처럼 ECB는 본래 존재의 목적인 "유로화의 몰락을 방관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 이렇게 변화한 시스템은 유로존을 보다 굳건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재정 감시 강화, 절차 준수의 강요, 안정적인 사채시장과 은행의 능동적인 역할은 탄탄한 유로존 통치의 기반이 될 것
-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ECB는 연쇄효과와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여전히 EU의 구조적 문제, 불경기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많으며 뉴노멀적인 개혁이 요구됨

- 안정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EU 지도자들은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구조 개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 금융구조에 대한 조건 강화와 같은 ECB의 일방적인 접근은 오히려 주변 경제를 더 깊은 불경기로 빠뜨리기도 함
-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뉴노멀적인 개혁을 통해 향후 유로존의 회복이 기대됨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김지연 (jiyeon7303@hanyang.ac.kr), 이창석 (laims2@hanyang.ac.kr)